

# 가운 다솜

##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짧은 순간  
짧은 한마디에서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느낌으로  
살아있음이  
행복임을 가슴으로 느껴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도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게,  
행복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나도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b>원장</b>	<b>법인명</b>	<b>법인대표</b>	<b>이용정원</b> 30명
김무경	사회복지법인	김선태 목사	<b>이용현원</b> 27명
<b>설립일</b>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b>직원정원</b> 29명
2010년 7월 19일			<b>직원현원</b> 28명



- 03 김선태 이사장 축하 인사말 (실로암효명의집 개원 10주년)
- 04 효명의집 코로나19 대처 상황
- 05 실로암 이야기
- 06 본관 휴유지 토목공사 소식
- 07 효명의집 일상생활 이야기
- 09 신입직원 소개
- 10 자원봉사 소개 및 모집 관련 이야기
- 11 나눔 이야기
- 12 복지뉴스
- 13 거주인 소통 이야기
- 15 더불어 사는 이야기

## 효명의집

### 창립 10주년을 맞게 하신

###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영적인 뜻입니다. 대한민국 시각장애인들이 암흑기와 격동기, 혼란의 시대를 겪으며 절망의 아픔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시각장애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어 큰 은총으로 도우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양주 효명동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효명의집을 세우시고, 10년을 한결같이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10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은 변함없이 효명의 집과 아름다운 걸음을 함께해주신 충직한 직원들과 후원자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세 가지의 망(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희망의 언어를 날마다 말하고, 희망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꿈도 이뤄지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넓은 야망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야망은 강한 의욕, 불타는 목표 의식, 강한 자신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자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큰 야망을 가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야망이 있을 때 인간은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야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덕망을 이루면서 사는 삶입니다. 덕망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훈훈한 인격의 향기가 덕망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효명의집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세 가지의 망, 즉 희망과 야망과 덕



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한 사계절 내내 까치와 이름 모를 새들이 행복의 노래로 아침을 열어 주며 다람쥐, 토끼, 노루들도 놀러와 머무는 아름다운 효명의 동산에서 효명의집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효명의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는 손길들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강건하며 행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효명의집 가족들과 돕는 손길들을 영원히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평화의 찬양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백년을 향해 믿음으로 씩씩하게 늘 푸른 마음으로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왕성하게 발전하여 희망의 태양처럼 빛나는 효명의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로암안과병원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효명의집 대처방안

- ① 1일 2회 각종 생활실 및 공동 사용공간들은 소독제 도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거주인 및 종사자들은 일상생활 시 마스크 사용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③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고 위해 자주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 환기 및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 ④ 비누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씻기를 하고 있습니다.
- ⑤ 방역살균케어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해준 소독제품을 사용하여 각종 생활실 및 신관, 본관등에 방역을 주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⑥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 ⑦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주인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재활교사 정구연입니다.

“사회복지”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졌던 30대, 결혼을 하고 난 후 아이 둘을 낳고 한참 깨가 쏟아지던 어느 날 남편의 명예퇴직 소식에 무엇을 먹고 살까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도 어리고 무엇을 먹고 살까 하는 고민 중에 남편은 마석에 어느 사회복지 시설에 이력서를 내고 와서는 저에게 시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저에겐 이해도 안 되고 그 월급을 받아 우리 식구가 살아가는 생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장이라는 이유로 일단 해 보겠다고 입사를 하여 먼저 사회복지에 발을 넣었습니다. 의외로 남편은 적응을 잘 하였고 혼자서는 4식구가 살기 힘들었는지 같이 하자는 제의를 하여 겁은 났지만, 남편 근무지에 가서 분위기 파악부터 하였습니다. 팔짱을 낀 지적장애인이 따라오는데 겁에 질려 도망도 가기도 하였지만 적응해 보려고 웃으며 대화부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남편의 근무지에 가서 장애인들과 친해지기 시작하여 사회복지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이 같이 근무 할 수 있는 근무지를 찾다가 새로 설립된 시설에 이력서를 내어 합격이 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쉽기도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어 티격티격 싸우면서도 몇 년을 같이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접하게 된 시설은 시각장애인 시설이었으며 효명의집과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었습니다.

쉽게 정을 주지 않는 장애특성상 케어하는데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장애인이 있다면 시각장애라는 생각에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들이를 가면 1대1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지만 시설 규모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두 명씩 케어를 하다보니 제대로 된 설명과 안내가 되지 않았던 점이 안타까웠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바였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 실물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자 하는게 저의 근무 철칙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 손으로 감각을 익혀 모든지 만져 보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알면서 가끔 남자 어르신들의 터듬이가 살짝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경력이 있어 능청스럽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도 사람인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으려만 하는 아쉬움도 표해 봅니다.

그와 반면 우리 효명의집 어르신들 중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손녀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정에 매력을 느껴 오래 오래 일하고픈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보면 18년의 사회복지 일을 하는 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듯 제 인생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기쁜 일, 슬픈일, 힘든일 모두 나의 삶에 묻어 저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곳임을 알고 전 오늘도 실로암 효명의집 대문을 들어 섭니다.







본관 휴유지 토목공사

거주인들의 안전한 산책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주인들이 산책 시 낙상, 부딪힘 등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널찍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여 향나무와 연산홍 등을 심어 내년에는 꽃이 활짝 피어 어르신들이 꽃을 만져 볼 수 있도록 조그마한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는 주차장을 만들어 손님들의 방문에도 협소하였던 주차장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거주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건물이 증축되어지는 공간으로 미리 공간을 준비해 놓은 곳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롤모델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실로암효명의집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효명의집 일상생활 이야기

코로나19 대비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



story 01 가정식 지원 (월 1회)

거주인별 원하는 음식을 요청하면 담당w`er가 요리를 직접하여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2~3명이 모여 식사를 제공하니 여유롭고, 오순도순 대화를 주고 받으며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story 02 거소투표 (4. 8)

제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거주인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효명의집 앞마당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후 거주인들이 사회의 일원임에 만족해하였습니다.



story 03 건강체조 (주 2회)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효명의집 내부에서 거주인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체조가 진행되었습니다. 거주인들의 유연성 증진과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story 04 요리교실 만두만들기 (월 1회)

일상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거주인들이 직접 원하는 메뉴를 선정하여 만들어 보고 맛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story 05 어버이날 행사 / 통돼지 바비큐 파티 (5. 8)

가정의 달 5월, 코로나 19로 인해 효명의집 식구들만 모여 소규모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장님의 말씀과 직원들의 합창, 직접 카네이션을 거주인들 가슴에 달아드



렸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후에는 통돼지 바비큐 파티가 진행되어 거주인들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story 06 원예치료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예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원예치료는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꽃꽂이, 꽃바구니 등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했던 추억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꽃향기에 취하고 거주인들의 입담과 꽃꽂이 솜씨에 놀라는 시간입니다.



story 07 텃밭가꾸기

6월의 따사로운이 내리쬐는 날, 실로암효명의집의 작은 공터가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고추와 상추, 수박 등을 심어 작물들이 커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작은 모종이 쑥쑥 자라길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텃밭을 가꿉니다.



## 신입직원 소개



최형월(생활재활교사 | 11. 1 입사)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입사한 최형월입니다. 제가 입사 할 때 실로암효명의집의 앞뒤로 보이는 산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디 높았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시설은 처음이라 낯설고 약간의 어려움과 어색함이 있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주인들과 라포형성도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업무도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주인들을 부모님과 형제자매처럼 대하며 매일매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뽐뽐 뽐뽐으며 생활하겠습니다.

김순희(생활재활교사 | 3. 16 입사)

‘가치 있는 삶에 동행하기’

안녕하세요! 3월부터 생활재활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순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는 처음이라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주인과의 만남을 통해 설렘은 더 큰 기대감으로 두려움은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함이 아닌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데 저의 열정, 성실함, 책임감, 전문성을 더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주인과 가치 있는 미래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실(영양사 | 3. 23 입사)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봄바람과 함께 실로암 효명의집 가족이 된 영양사 이진실입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듯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실로암 효명의집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노력하는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효명의집 생활을 기대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행복한 동행이 되길 기도합니다.



전승미(생활재활교사 | 4. 1 입사)

양주에 오래 터를 잡고 살았어도 이곳 실로암효명의집은 처음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이시설에서만 오래일을 하다 몇 년 쉬었기도 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처음이기도 해서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 복잡한 심정으로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미소가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거주인분들 덕에 제 마음이 안정이 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 익숙해지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직접 실천하기까지 힘든 일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요?

### 자원봉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대상자는 없습니다.  
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이시면 됩니다.

### 자원봉사 시기가 있나요?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단 자원봉사 신청 전 자원봉사 담당자와 상의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 장애의 특성을 잘 모르는데 따로 교육을 진행하나요?

자원봉사 활동 전 담당자를 통해 장애 특성 및 봉사활동에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자원봉사 활동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하며 평등한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또한 기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며, 관심 있는 일 자기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자원봉사에 대해 궁금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031-876-2900 담당자 김은철 선임생활재활 교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세요.



### 2020. 01

제 4대  
김무경 원장 취임



### 2020. 01

시설명칭 변경 실로암요양원 > 실로암효명의집

### 2020. 03

한국전기 안전공사 “2020년도 장애인공동거주시설 전기설비 개선사업 선정”(가로등 신설)

### 2020. 04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평가 “A”등급

### 2020. 04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원예치료)



### 2020. 04

SSCL 장애인 신체기능향상 프로젝트 “꿈의 엔진을 달다” 선정(작업치료 교구)

### 2020. 06

SSCL 장애인  
신체기능향상  
프로젝트  
“꿈의 엔진을 달다”  
선정  
(언어치료 교구)





## 시각장애인 복지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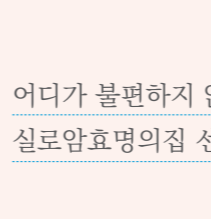


- 0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면 전체 보급품목(도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보통신 관련 복지혜택은 방송화면을 해설해주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0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 센터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정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03 언어발달 지원**  
부모 중에 한 명(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이 시각장애가 있으면 12세미만 비장애 자녀는 언어발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6에서 22만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을 바우처로 지급해 줍니다. 시설치료실이나 복지관 등에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04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해당되고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시설치료실이나 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5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 내용은 후천적 요인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06 보조견 지원사업**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안내견도 있습니다. 이보조견도 국가에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지원을 해줘서 무료로 지급됩니다. 단,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중증이나 경증이나 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도만 보고 보조견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견을 잘 돌봐줄 수 있는가, 가족이 있어서 그 보조견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조건을 따집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 협회에 온라인 접수를 하시고 면접,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07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바우처 택시제도가 있는데요, 협약을 맺은 콜택시를 이용하면 4만원까지 택시비의 75%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주변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서문섭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실로암효명의집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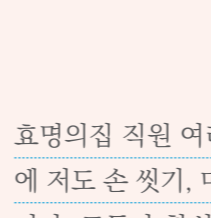
김인경

어디가 불편하지 않는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실로암효명의집 선생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백하청

효명의 동산이 앞으로도 잘 유지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효명병원이 세워져 하늘나라로 갈때까지 이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게 제 소망입니다.



조경조

효명의집 직원 여러분! 힘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걸 알고 있기에 저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거리두기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효명의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태

실로암효명의집이 최고의 장애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고 노력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을 통해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승옥



성옥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0주년을 맞이하는 실로암효명의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지금의 모습처럼 남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귀한 실로암효명의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욱 발전하길 기도드립니다.



조영순



김동희

실로암효명의집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실로암효명  
의집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  
복한 효명의집이 되길 기도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로암효명의집은 과거도 행복했고, 현재도 행복합니다.  
효도를 하고 밝음이 찾아와 늘 행복의 꽃이 필니다.

이순희



이숙경

매일 실로암효명의집 신관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면 신선이 된  
기분을 느낄수 있으며, 마음이 따뜻한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고맙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정을 간직하고 있는 실로암효명의집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지정규



## 더불어 사는 이야기

### 1~6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4,500,000	사무비	4,475,386
비지정후원금	20,553,100	재산조성비	18,871,830
기타	-	사업비	3,405,870
합계	25,053,100	합계	26,753,086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1~6월)

자원봉사자	후원자
	<b>단체</b> 주)무드머스, 한명교회, 해피빈
	<b>개인</b> 강영순, 강해정, 김경란, 김경민, 김광환, 김기창, 김기태, 김누리, 김명근, 김무경, 김미경, 김민경, 김선태, 김순희, 김영선, 김영준, 김용기, 김은경, 김은숙, 김은철, 김은태, 김은희, 김인자, 김정현, 김진현, 김태연, 김태웅, 김태훈, 김현도, 김형도, 김혜란, 김호식, 김호직, 남성우, 노형지, 문경수, 박대삼, 박민재, 박성일, 박수연, 박수정, 박은애, 박인수, 박정훈, 박주희, 박지상, 박지훈, 박찬재, 박홍윤, 백기령, 서미숙, 서민택, 성미경, 손명희, 송우성, 소오, 신동선, 신혜진, 안덕인, 양민정, 오창래, 유동수, 유원열, 유재학, 유현서, 유홍진, 윤분순, 윤순옥, 윤찬호, 이강일, 이경숙, 이광열, 이금선, 이로서, 이미경, 이범준, 이병건, 이복규, 이봉희, 이상미, 이순희, 이승옥, 이영태, 이운행, 이재영, 이재진, 이정목, 이정원, 이정인, 이진실, 이진용, 이현규, 이혜지, 임국화, 임석빈, 임정수, 임정수, 임준규, 장은경, 장혜순, 전승미, 전예리, 전정희, 전주미, 전현출, 정강수, 정구연, 정세훈, 정은경, 정창선, 정혜미, 정혜미, 정혜미, 정혜진, 조경조, 조동고, 조영순, 조옥분, 조완제, 조재형, 조재훈, 지승태, 천연옥, 최규영, 최도영, 최동익, 최문옥, 최병권, 최영훈, 최은미, 최은희, 최정자, 최준호, 최형철, 추교훈, 하은주, 하임출, 한방희, 한재근, 한창희,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현재순, 홍순자

###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자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명의집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a href="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a>

###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말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